



2020. 7. 10.

www.nckpcusa.org

1. 총회장 메시지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이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마9:17)

무더운 여름이 성큼 우리 곁에 왔습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이 회원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6월에 PCUSA 224회 총회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공동 총회장으로 Alabama주 Huntsville의 Fellowship Presbyterian Church의 Bentley 목사님과 Lakes and Prairies 대회의 Elona Street-Stewart 총무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오지현 목사님이 총회 부서기에 당선되었습니다.

화상 회의로 인해 긴급한 안건이 아닌 것들은 다음 총회로 넘겨졌습니다. 서부지역에 한미노회를 구성하는 안건과 NCKPC를 한인코커스로 허락하는 안건은 다음 총회로 넘겨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의 평범한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교회, 학교, 직장, 비즈니스, 사회생활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 해오던 유대교의 전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틴 루터와 비롯한 개혁자들은 새로운 개혁신앙의 패러다임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의 개척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며 팽창할 때 헌 부대는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목회는 이전에 해오던 전통적인 헌 부대에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람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갑시다. 한미노회, KPC, NCKPC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인교회와 목회의 패러다임을 만들

어 나갑시다. 지역에서 노회와 KPC를 중심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SNS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목회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며 창조적인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선도해가는 한인교회와 목회사역이 되도록 합시다. 내년 희년 총회에 NCKPC의 새로운 교회와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샬롬!

총회장 최병호 목사 드림 (원문)

2. NCKPC 임원회 소식

- COVID-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후원을 신청한 12 회원교회들에게 2차로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19년도 재정 결산을 보고받고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George Floyd 사건 이후 교단 내 구조적인 인종 차별주의 저항과 인종 차별주의 정죄에 관련하여 [NCKPC의 성명서](#) 발표와 타 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한 서신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조국의 평화를 위한 [NCKPC의 기도문](#)을 회원교회들에 배포하고, 선교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교단](#)들과도 기도문을 교환하였습니다.
- NCKPC의 공식적인 대표 이메일은 nckpc@nckpcusa.org입니다.

3. 대회/노회/교회 소식

- 지난해 12월 말 교통사고로 예배당이 전파되어 폐쇄되었던 스프링필드 한인교회에서 NCKPC회원 교회들의 기도와 지원에 힘입어 공사를 하던 중, 주문 제작된 강대상과 성찬단이 도착하여 설치하면서 도움을 주신 NCKPC의 총회장님과 사무총장님 그리고 임원들과 모든 회원교회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울러 김재철 목사님께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스프링필드 한인교회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 각 대회, 노회, 교회에서는 Newsletter를 통해 회원교회에 알리고 함께 축하하거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보내 주셔서 NCKPC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마지막 날까지 소식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nckpc@nckpcusa.org)

4. NCKPC의 COVID-19 재난 후원금 추가 모금과 후원

- COVID-19 재난으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2차로 모금된 후원금은 7월 초 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신청서를 낸 12개 교회에 7월 8일에 수표를 발송하

였습니다. 모금에 후원해 주신 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0,000 - 마이애미 장로교회 (주용성 목사)
- ★ \$3,000 - 찰빛교회/뉴저지 (황주 목사)
- ★ \$5,000 - 남선교회 (엄재용 회장)
- \$18,000 (추가 모금 총액)

- 지난 2개월 동안에 1차, 2차로 모금하고 지원한 후원액은 총 \$83,000이었으며, 이 중에 \$25,000은 교단 안의 5개 Caucus (Native American, Asian, Hispanic, Middle Easter, African American) 들에게 각 \$5,000씩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모금액 \$58,000은 NCKPC 산하에 있는 32개의 회원 교회들을 후원하였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중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교회와 기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신청한 교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5. PCUSA(미국장로교) 제224차 총회 소식 (최정석, 조문길 목사 제공)

- 원래 6/20-27일에 볼티모어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미국장로교 224차 총회가 COVID-19으로 인하여 Zoom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기간: 2020년 6월 19-20일, 26-27일

전체 총대수: 약 480명

한인 총대수: 16명 (Young Adult Advisory Delegate 포함)

- 예년과 달리 이번 총회가 화상으로 불과 2-3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회의 시간은 하루 반 정도), 총회 준비팀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앞으로 2년간의 정상적인 교단 운영이 불가능한 필수적인 안건들만 다루고 다른 안건들은 다음 225차 총회 (Columbus, OH, 2022년 7월 2-9일)로 연기하는 것을 제안하고 총대들의 승인을 거쳐, 이번 총회에 상정되었던 대부분의 안건들은 225차 총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선출

- 6월 20일(토) 저녁에 열린 총회장 선출에는, 3팀의 총회장 후보자들 가운데, 1차 투표를 통해 Elona Street-Stewart 장로와 Gregory Bentley 목사가 공동 총회장 (Co-Moderators)으로 선출되어서 앞으로 2년간 PCUSA 총회장으로 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랬던 이문희 장로와 Sandra Hedrick 목사 팀이 총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쉬운 점입니다.

오지현 목사의 부서기 (Associate Stated Clerk) 인준

- 한인 2세 여성인 오지현 목사(Rev, Jihyun Oh)가 이번 총회에서 미국장로교 사무국(Office of General Assembly)의 공식 부서기(Associate State Clerk)로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오지현 목사는 미국장로교 사무국(OGA)에서 중간공의회(대회 및 노회의 사역)를 책임 맡는 Director of Mid Council Ministries로서, 이번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또한 정서기(Stated Clerk)와 함께 associate로 교단을 설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아주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지현 목사 약력: MIT(bachelor), Columbia 신학교(M. Div.), 아틀란타 노회 노회장 역임

Rev. Dr. J. Herbert Nelson, II의 정서기 재임 인준

- 지난 2016년 총회(222차, 포틀랜드)에서 정서기로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Rev. Dr. J. Herbert Nelson, II께서 이번 총회에서 재임이 승인되어 앞으로 4년간 미국장로교를 이끄는 정서

기 (Stated Clerk) 로 설리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와 한국과 관련된 안건들

- 원래 이번 총회에는 NCKPC를 PCUSA의 공식 코커스로 승인을 받는 헌의안을 포함하여 한인교회 및 한국과 관련된 안건들이 모두 4개가 상정되었으나, 총회 준비팀에서 제안한대로 모두 다음 총회 (225차, 2022년 7/2-9일, 쿨절버스, 오하이오)로 넘겨져 2년 후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음 총회로 넘어간 4개 헌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NCKPC의 공식 코커스 인정: On Recognition of the 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as One of the Racial Ethnic Caucuses
- ② 서부지역에 한미노회 조직: On Creating a Task Force Regarding the Creation of a Korean-Language Presbytery on the West Coast
- ③ 한반도 관련: Regarding a Korea Peace Treaty
- ④ 한인교회의 노회 이전: On Transferring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from the NYC Presbytery to the Long Island Presbytery

중간공의회와 지 교회에 대한 권고 사항

- 미국장로교에 속한 개체 교회, 중간공의회, 총회 및 모든 기관은 그들의 내규에 반인종차별 (antiracism) 정책을 계발하고 채택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곧 규례서 G-3.0106를 수정하여 각 공의회는 모든 회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반인종차별 정책을 추가하는 안건을 225차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하기 전인 지금부터서라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Per Capita (교인 분담금): \$8.95 에서 \$8.98로 인상
- 중간공의회에 관한 행정전권위원회: 총회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2년간 노회 및 대회와 관련된 안건들(조직, 분리, 통합 등)에 대해 총회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전권(Commission)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 (G-3.0502e). 이 전권위원회의 구성에 목사와 장로, 그리고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촉구하므로 한인교회 교인들 가운데 전권위원회에서 설기고자 하는 분들은 ganominations.pcusa.org를 통하여 online application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계시는 분은 총회 최정석 목사, luke.choi@pcusa.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연금국 소식

- 현재까지 연금국으로부터 3개월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은 한인 교회는 총 122 교회이며, 2개월 부담금 지불 연기 혜택을 받은 한인교회는 총 12 교회입니다. COVID-19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교인수 300명 이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3개월 연금국 부담금 면제 혜택 이외에 연금국에서 교회에 제공하는 추가 혜택은 아직 없으며, 3개월 이상 면제 혜택 연장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교회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 이익 분배 (Experience apportionment): 2019년 투자이익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년 7월 1일자로 분배됩니다. ([관련기사](#))
 - ① 현재 연금 가입자 (현역) - 현재까지 적립된 총 Pension Credit에 2% 적용.
 - ② 연금 수령자 (은퇴목회자 및 연금 받는 배우자) - 현재 받는 연금의 2% 증액.
 - ③ 연금에 가입했다가 현재는 가입되지 않은 목회자/직원 - 과거 적립된 Pension Credit에 2% 적용.※금년을 포함해서 지난 8년 동안 제공한 투자이익 분배는 총 26.4% 입니다.

• COVID-19 의료 혜택 관련 소식

- ① PPO Plan 이나 EPO Plan에 가입된 목사님과 가족들이 In Network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Deductibles and Copayments가 면제됩니다.
- ② PPO Plan, EPO Plan and HDHP Plan에 가입된 목사님과 가족들이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In Network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을 경우, 테스트 비용이 면제됩니다.
- ③ PPO Plan, EPO Plan and HDHP Plan에 가입된 목사님과 가족들은 Teladoc을 통해 24시간 연중 무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Teladoc Consult Fee 면제가 7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 자료](#))

• 2021년부터 PPO 치과보험료가 교회 주소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금년 PPO 치과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온라인 행정담당자(Web Representative)가 2021년 Employer Agreement를 Benefits Connect로 보고할 때 변경된 PPO 치과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Employer Agreement 보고 - 2021년 Employer Agreement 보고 기간이 7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교회/고용기관 온라인 행정담당자가 2021년 목회자/직원 보험 혜택을 연금국에 보고하는 기간입니다.

• 2021년 새 패키지(Minister's Choice) - 2021년부터 출시되는 새 패키지, Minister's Choice는 20시간 이상 사역하는 비취임 목회자 또는 특별 목회를 하는 사역자를 위하여 교회에게는 적은 부담, 사역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정보](#))

• 고용주(교회/기관)가 납입하는 연금의 부담금(pension dues)이 2021년부터는 종전의 effective salary의 11%에서 8.5%로 인하 조정됩니다. 연금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연금국의 연금 기금이 건전하고 잘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연금 혜택은 변동 없이 현재와 같이 제공하고, 연금 부담금(Pension Dues)은 하향 조정합니다. 2021년 Benefits Changes 등 [유익한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연금에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도움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30 - 오후 5시에 800-773-7752, ext. 7262로 전화하셔서 이동조님(한인교회 한인 목회자 담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NCKPC 산하기관 집회 취소 혹은 변경

• 올해 9월 24 - 26일에 예정된 남녀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호스트 교회: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호텔: Sheraton Detroit Novi Hotel)를 취소하고, 내년 9월 23 - 25일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선교회는 내년에 2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기에 2021년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는 남선교회 중심의 집회가 되겠습니다.

• 여선교회는 올해 9월 24일(목) 오후 8시(동부시간)에 zoom으로 3회 실행위원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제18회 NKPW 총회를 내년 4월 29일 - 5월 1일에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 작년에 추수감사절 휴일 기간에 시카고 한미장로에서 가졌던 전국청년연합수련회(주관: 이명구 목사)는 금년에는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 한미 장로교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미시간 소재 한미 장로교 장학재단(회장: 김성택 목사, 서기: 김종대 장로)은 재미 한인교회와 재미 한인공동체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2020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다.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미주 지역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0년 7월 25일까지며, 우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안내 보기](#))

9. 인종 정의(racial justice)에 대한 NCKPC 성명서 발표

- 지난 5월 25일 미네아폴리스에서 경찰의 지나친 폭력으로 살해된 George Floyd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NCKPC는 6월 14일 전국교회에 총회장의 이름으로 [NCKPC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동시에 미국장로교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성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Presbyterian News](#)는 6월 15일 “[Silence is not an option](#)”이라는 부제와 함께 우리의 성명서를 게재하여 모든 장로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알렸습니다. “As we Korean Americans continue to cry out to the Almighty God to heal our land and to turn our nation back to our God,” the statement goes, “we also want to share our humble statement with our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of the denomination to pray together, strengthen one another, and to rise up courageously against persistent racism in America.”
-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미국장로교의 정책에 연금국도 함께 결단하는 ‘[인종의 공평성에 관한 연금국 성명서\(Board of Pensions statement on Racial justice\)](#)’를 6월 18일 발표하였습니다. 연금국의 McFayden 부사장은 함께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justice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조치(step or action)를 하고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함께 연대하는 일에 Korean Caucus가 동역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6월 24일 NCKPC로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연금국은 우리 한인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번 racial justice 사안에 대해서도 한인교회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하도록 partnership grant로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연금국의 education program에 한인교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입원회에서 6월 29일 연금국의 제안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10. 목회자 청빙 안내

- [데이튼 엠파뉴얼 한인장로교회](#) - 오하이오 (8월 15일까지 접수)
- [포윌튼비치 한인제일장로교회](#) - 플로리다 (8월 30일까지 접수)
- [Dardenne Presbyterian Church](#) - 미조지 (Associate Pastor 청빙)

11. NCKPC 희년준비위원회 사역 보고

- 2021년 5월에 열릴 NCKPC 총회를 희년총회로 선포하고, 이후 1년 동안 희년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제48회 총회(2019년)에서 희년준비위원회(이하 희준위)의 조직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된 희준위(위원장 - 남후남 장로, 부위원장 - 김성택, 유지훈, 장신옥, 이귀호, 이영배, 자문위원 - 이영길, 조문길, 최병호, 이유신)는 그 동안 6차례의 모임을 갖고, 4분야(희년 축제, 목회와 신학, 교단과의 관계, fundraising)에 걸쳐 의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6월 16일에 모인 목회와 신학 소위원회(위원장 - 김성택 목사)는 희년 총회의 준비를 위해 두 가지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 ❶ NCKPC 첫 희년 신앙고백서 - 첫 희년의 기쁨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과 주신 사명에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한 자신들을 통회하며, 주님의 생명의 빛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신앙고백서

(Confession of Faith).

② COVID-19 이후의 변화된 context (“the new normal”)에 따른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연구와 제시.

- 이와 같은 소위원회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멤버를 대폭 확장하고 참여 범위도 넓혀서 12명의 위원(Samuel An, 김은주, 고창현, 김익태, 김영철, 최경화, 김정숙, 김성택, 유승원, 이영길, 이유신, 조문길)과 최병호 총회장(ex officio), 두 분의 자문위원(안성호 교수와 옥성득 교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5주 동안 brainstorming을 위한 주제 발표와 Q/A session을 거친 후, 주제에 대한 묵상과 기도의 과정을 거쳐 12월 말까지 신앙고백서의 초안을 완성하고, 아울러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여 2021년 회년 총회에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2. NCKPC 연회비 안내

- NCKPC는 교단의 내외적인 Issue에 대해 대처하면서 한인교회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동성애 문제 등으로 인해 교단 내외적으로 한인교회가 오해를 받는 문제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고, 교단 안에서 한인교회가 소수 교회로서 받는 부당한 문제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며, 교단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을 할과 동시에 한인 교회나 모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 Project를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들이 보내오는 연회비는 NCKPC가 교단 안에서 Caucus로 사역하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 올해 NCKPC 연회비는 COVID-19 사태로 개 교회의 형편에 따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용지]

- 연회비: 활동교인 당 \$10

- 연회비 우송 정보

- o Payable to: NCKPC

- o 주소: Esther Lee (NCKPC Treasurer)

- 30563 Calle De Suenos

-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 o Note: Memo난에 ‘NCKPC 회비’라고 적고, 교회 이름과 담임목사 이름을 명시하십시오.